

아홉째 주 - 아모스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아래의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5-7 분 동안 나누십시오:

-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졌던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과거, 현재, 실재하는, 또는 소설이나 영화 속의 인물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여러분이 저녁을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성경을 소리 내어 읽기

아모스 2 장 6 절-3 장 15 절

아모스 5 장 21-24 절

아모스 6 장 11-14 절

아모스 7 장 14-17 절

아모스 9 장 11-12 절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1. 여러분은 본문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 a.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에 대해 강하고 엄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 본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 a. 예) 왜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번영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시했습니까?
 - b. 왜 절기들을 지키거나 성회에 모이는 종교활동들이 하나님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모스가 중요한가?

아모스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어떻게 자신이 낮은 자들, 짓밟혀 신음하는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그리고 소외 받는 자들을 돌보시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는 또한 그들의 물질적인 번영과 경제적인 안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시 했던 이스라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서만 부를 쌓은 이스라엘, 또 가난한 자들을 희생으로 부유하게 된 이스라엘을 정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로 인해 억압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힘이 강한, 제일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물질적인 번영과, 편리함, 또 사치를 누리고 있지만, 그 뒤에는 체계적인 가난함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들의 행동이나 결정에 상관 없이 사회로부터 소외 받고 억눌려 가난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특권층에 속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을 이스라엘과 동일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미국의 번영이 그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모스는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동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포함한 이 시대의 강대국들도 그들이 가난한 자, 약자들을 짓밟고 부요하게 된 것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미국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메리카의 토착민들을 말살하고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잡아 일하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국은 오늘날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해 솔직해지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서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사회에서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도록, 그 정의와 공평의 실현이 그들의 믿음의 실현이 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경제, 문화, 정치가 약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채로 종교의식에만 치중하는 것이 그 종교의식을 행함으로 지키고자 하는 율법 그 자체에 대한 불순종인 줄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혹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 안에서 도리어 약하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배척하고, 억압하며, 심지어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조차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에서의 예배도 혹시 그저 하나님께 대한 “립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모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과, 부요한 자들에게만 특권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모스서의 끝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¹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² 예수님은 억압 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를 회복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의와 공평을 세우는 자들의, 또 특히 소외된 자들의 왕이 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¹ 아모스 9 장 11-15 절

² 누가복음 4 장 18-19 절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존중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들을 반가이 맞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³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은 결코 억압이나, 거절, 착취나 짓밟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심을 통해 낮은 자들을 높이는 왕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소망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 중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정에 시달리는 팔레스타인의 한 유대인(즉,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점령당한 한 작은 민족의 일원)으로 오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제국의 손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결코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려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 중 한 사람 같이 되셨고, 그들과 함께 고통 받으시고, 그들을 가난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정의와 공평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3.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오늘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 a.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위가 여러분의 국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b. 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요한 사람은 더 부요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 c.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공정한 경제 활동이 어떻게 실현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해석하는 여섯 가지 법칙: 시간이 충분하다면 같이 읽으십시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각자 집으로 가져가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1. **문학적 해석:** 장르—예언서; 아모스의 예언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으로,⁵ 그들의 불순종과 정의롭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⁶ “정의”(justice)와 “공의”(righteousness)가 함께 동반되어야 함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둘 다 실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⁷

³ 누가복음 14 장 21-24 절 (큰 잔치 비유); 마태복음 5 장 1-5 절; 마태복음 25 장 31-46 절.

⁴ 빌립보서 2 장 5-8 절

⁵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930 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습니다.

⁶ “Amos,” *The International Bible Society*, <https://www.biblica.com/resources/scholar-notes/niv-study-bible/intro-to-amos/>.

⁷ “Read Scripture: Amos,” *The Bible Project*, <https://www.youtube.com/watch?v=mGgWaPGpGz4>.

2. **역사적 해석:** 아모스는 원래 목자이고, 농사꾼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군사적, 정치적,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나라였습니다. 또 그들의 종교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사회는 낭비와 불평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부요한 자들은 부패했고, 부도덕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성공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옹호하고, 축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모스가 등장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갔는지, 또 그들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성공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 하시는지 알려주었습니다.⁸ 아모스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대략 기원전 792년부터 기원전 740년까지입니다.⁹
3. **신학적 해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¹⁰ 하나님은 그들 중 가난한 자들의 희생으로 부를 축적한 이스라엘에게 외세의 침략을 통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곧 정직한 삶입니다.¹¹ 그러나 심판과 멸망 뒤에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¹²
4. **문화적 해석:** 아모스는 이스라엘 왕의 궁정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한 작은 도시 출신이었고, 벰엘로 올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 당시의 이스라엘의 경제 시스템은 빈곤층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었고, 가난은 늘한 세대를 거쳐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살기 위해 그들 자신을 노예로 팔았고, 부패한 왕의 궁정은 귀족들을 지지하며 가난한 자들을 가난 속에 아예 가두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을 공포합니다.
5. **성경의 큰 그림:** 아모스는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억눌림과 억울함 속에서 건져 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그 이웃들을 억누르고 억울하게 하는 것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옳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또한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 위에 주 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나라들을 사용하실 것임을 말해줍니다.
6.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은 아모스에게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진실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진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을 돌보시며, 자신의 부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심히 증오하고 멸시하신다는 것입니다.

⁸ “Read Scripture: Amos,” *The Bible Project*, <https://www.youtube.com/watch?v=mGgWaPGpGz4>.

⁹ “Amos,” *The International Bible Society*.

¹⁰ 아모스 5 장 24 절

¹¹ “Read Scripture: Amos,” *The Bible Project*, <https://www.youtube.com/watch?v=mGgWaPGpGz4>.

¹² 아모스 9 장 11-15 절

영상 시청하기

아모스서의 전체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배경을 보여주는 아래의 영상을 같이 시청하십시오 (“Read Scripture: Amos” by The Bible Project): <https://www.youtube.com/watch?v=mGgWaPGpGz4>

기도로 마치기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부도덕적인 행위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위들에 참여하고, 그것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그것들을 묵살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미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더욱 살기 어렵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떻게 우리 소유를 축적하는지, 어떻게 이웃들과 상생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봄을 통해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자비 베풀기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